17일 Market Index
코스피 8864.24 (+137.64)
코스닥 1031.96 (+13.28)
금리(국고채 3년) 3.710 (-0.007)
환율(원·달러) 1511.70 (+0.1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1137억 회수 비상
03

AI發 반도체 수출 호조 금리인상 명분 키운다

한은, 물가·금융안정 자극 판단

'반도체 호황의 역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우려를 덜어냈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 주가, 세수와 재정지출을 거쳐 가계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었지만, 의사록의 무게중심은 이미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기준금리 2.50% '표면적 동결'
무게중심 '인상 시기'로 옮겨가
반도체 이익, 기업에 머물지 않고
소비·주택시장 이동땐 통화 압력
이미 일부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 성장보다 물가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정책 질문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이 깊어질 때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떠받치는 논리가 앞선다. 하지만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성장 호조가 오히려 긴축 명분이 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론의 중심에는 유가와 환율이 있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금통위가 이번에 더 깊게 들여다본 것은 그 다음 단계다. 공급충격이 일회성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수요압력과 결합할 경우 물가 흐름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수출 호재가 내수 압력으로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예상을 크게 웃돈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 기간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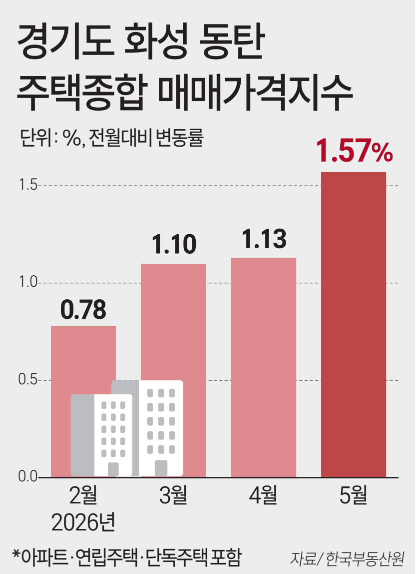
문제는 반도체 이익이 수출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통위원들은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성과급, 주가 상승, 배당,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로 이전될 수 있다고 봤다.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 개선에 그치면 성장 호재지만, 그 돈이 가계소득과 자산효과를 거쳐 소비와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수요압력이 된다.

의사록에는 이 경로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과 직주근접한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한은이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성장 호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수출과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임금, 주가, 배당, 부동산 기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다.

금통위는 의사록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성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본지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성료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이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오른쪽에서 일곱번째)와 최상인 동서식품 홍보실장(왼쪽에서 다섯번째)감동훈 롯데칠성음료 커뮤니케이션부문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취업자수 감소 전환… 정부 '고용대책 골몰'

중동전쟁 영향… 17개월 만에 줄어
정부,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 가동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 쾌속 집행

국내 고용시장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17개월 만에 취업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가동하고 업종별·연령별 고용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14만 명 감소)과 수주 부진을 겪는 건설업(4만 3000명 감소), 농림어업(12만 1000명 감소) 등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수시채용 확산에 직면한 청년층의 타격도 컸다. 청년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올라 고용 최일선의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해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뉴딜 아카데미를 6월부터 모집해 7월에 개설하고, 체납관리단도 7월(5500명)과 9월(4000명)에 걸쳐 신속하게 채용한다. 이와 함께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신규 지원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타격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동향을 밀착 분석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현장 소통을 강화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고용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수립한다.

최근 급속히 진행중인 인공지능전환(AX), 녹색전환(G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자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SK하이닉스, 학력제한 전면 철폐… 신입사원 수시채용

공고에 학력 자격 요건 모두 삭제
사실상 전 직군 채용에 일괄 적용

SK하이닉스가 AGI(일반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수시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학력 장벽을 허물고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1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했다. 지원자가 보유한 경험과 직무 역량, 기업문화 적합성 등이 부합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학력 요건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지원이 제한됐던 고졸·전문대졸자도 학력에 따른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력 요건을 없앴다고 해서 SKCT(종합 역량검사) 등 기존 역량 검증 절차가 별도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은 기존 공고에 안내된 전형 그대로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별도 정기 공채 없이 수시 채용으로 인력을 선발하고 있어, 이번 학력 요건 폐지는 사실상 전 직군 채용에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학력 파괴 채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상과 맥을 같이한다. 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 '3대 근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野, '탈모 건보 적용' 추진에 "2030 겨냥한 매표성 정책"
▲한동훈, 장동혁 거취에 "보수정당 중요 가치가 책임지는 모습" /사진 뉴시스
▲국힘, 선관위 공무원 '외유성 출장' 논란에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관광·휴양 정황"
▲21대 대선 투표함서 과거 선거 투표지 발견…결과엔 반영 안 돼
▲정점식 "與, 6·3 참정권 훼손 특검법 수용하라…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조국혁신당, '투표용지 국조특위'에 정춘생 의원 내정